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자아, 결혼,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연구: 한국 아동 패널 3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유승연** 임지선*** 김연하****

Comparative Research on Ego, Marriage and Parenting-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Normal Infants and Mothers of Infants with Developmental Risk: Focus on the 3rd Year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Yu, Seung Yeon Lim, Ji Sun Kim, Yeon Ha

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 발달을 보이는 영아 어머니의 자아, 결혼, 양육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일반 영아 어머니의 특성과 비교·분석 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빈도분석,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2010)자료의 총 표본 1802가구 중 한국형 DenverII 아동발달 검사결과 정상 범주로 구분된 1584명의 영아와 의심스런 발달로 구분된 186명의 영아의 어머니이다. 연구결과, 어머니의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 중 결혼 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 중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영아 어머니가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덜 갖고, 건강한 자아심리와 양육실제, 부부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 지며, 위험 발달 영아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제어 : 아동발달 특성(한국형 DenverII), 어머니의 자아 심리적 특성, 결혼 심리적 특성, 양육 심리적 특성

* 본 연구는 2014년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 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seungyeon705@naver.com)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seizer80@nate.com)

****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yeonhakim@khu.ac.kr)

I. 서론

신체, 언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위험 발달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험 발달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발달 지체를 보이는 아동의 수는 약 2.71%로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1).

특히 아동 발달적 관점에서 출생부터 36개월 사이에 있는 영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발달속도가 빠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유수옥, 2005). 이 시기에 선천적 요인이나 후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을 가진 위험 발달 수준의 영아를 조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발달지연이 가속화되어 이후 장애아동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장혜성, 서소정, 하지영, 2008).

한편 영아의 정확한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발달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Humphry & Wakeford, 2006).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주된 양육책임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심리 상태는 아동의 정서·인지·사회성 발달 전반에 걸쳐 영아기 때부터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 되었다(오정순, 2012). 따라서 위험 발달을 보이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위험발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아기에는 아동의 발달 변화의 속도가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의 행동 양상이나 기능의 발달 속도가 각각 다른 것이 특징이므로 이 시기에 아동 위험발달의 조기 판단과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 및 선별검사를 통해 검사상 발달지연과 정상으로 진단된 영아들의 환경적 요인의 일반적인 경향만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위험 발달을 보이는 영아 어머니의 자아, 결혼,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을 일반 영아 어머니와 비교함으로써 위험 발달군 영아의 발달과 환경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어머니의 자아 관련 심리적 특성 중 학자들이 가장 관심을 둔 것은 우울이었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는 아동은 정상적인 어머니를 둔 아동들보다 우울한 기분이나 원인 모를 두통, 흥미 결여, 그리고 위축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Welner, Welner, McCrary, & Leonard, 1977). 또한 우울증 부모의 아동은 부모와 아동 간에 불안정한 애착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Radke-Yarrow, Cumming, Kuczynski, & Chapman, 1985). 우울증 부모의 자녀들은 정신 병리 발병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또래관계의 어려움, 사회적 유능감의 저하, 저조한 학업 수행 등 전반적인 사회적 적응 영역에서 문제를 보였다(김현정, 2002).

자아존중감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어머니는 애정적이며 긍정적인 양육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들의 아동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의 아동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며, 자신의 수행결과가 어떠한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고(Felker & Stanwyck, 1971), 수행에 대한 원인도 긍정적으로 귀속시킴을 보였다(오혜영, 1981). 또한 아동적응의 한 지표인 학업성취

와도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Stigler, Smith, & Mao, 1985).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과제를 해낼 때 스스로 성공적인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념이나 기대를 말하며(Bandura, 1997), 난관에 직면했을 때 저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Lerner와 Galambos(1985)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으면 자녀의 요구에 회피적인 반응이나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보였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인 행동을 보였다(Lerner & Galambos, 1985). Kim과 Seo(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자녀의 양육방식을 직접적으로 예측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양육은 어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아버지도 직, 간접적으로 자녀양육을 담당하고 책임을 진다. 부부관계의 질은 아동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동의 애착행동이나 아동의 능력발달 수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성연, 1992).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도를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으로 규정하고 위험 발달군 영아를 둔 어머니와 일반 영아의 어머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느끼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심리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임현주, 최향준, 최선녀, 2012; Abidin, 1992), 부부특성과 아동의 발달과의 관계에 있어 결혼만족도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의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itzmann, 2000).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아동의 성적은 정적관계를 나타냈으며(엄경아, 1992), 결혼만족도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노명희, 이숙, 1991).

부부갈등은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공격성이나 반항행동,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적 행동문제(김민정, 도현심, 2001; Jenkins & Smith, 1990)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동의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적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김정란, 2004; 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 나아가 부부갈등은 아동의 또래문제(정은희, 이미숙, 2004), 학교부적응 및 인지적 문제(이윤주, 2004; Grych & Fincham, 1990)와도 관련이 있었으며,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에서 온정적 양육방식 대신 통제적, 체벌적 양육방식을 나타낸다는 Buehler와 Gerard(2002)의 연구도 있었다.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 경우 아동의 사회·정서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김광웅, 이인수, 1998),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영경, 민현숙, 2010).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허보윤, 한경자, 2009), 남편의 양육참여를 통해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온정성과 반응성의 양육방식을 택하였다(임현주, 최향준, 최선녀, 2012).

이와 더불어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인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타일, 양육 지식 또한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우선, 양육지식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양육지식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발달적 기대와 기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Conrad, Gross, Fogg, & Ruchala, 1992;

MacPhee, 1984; Miller, 1988). 또한 영아의 발달에 대한 양육지식이 높은 어머니 집단일수록 양육지식이 낮은 어머니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영아의 발달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을 말하였다(Seo, 2006). 따라서 양육지식이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윤형주, 조복희, 2004; Hunt & Paraskevoudos, 1980; Klein & Cordell, 1987).

양육 스타일은 바람직한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발현되는 형태로, 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보이는 온정적인 태도 또는 실제적인 반응정도를 말한다(Bornstein, 1989). MacDonald와 Parke(1984)는 언어적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에게 인기가 있으며, 사회적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스타일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왔다(문경주, 오경자, 2002; 이순복, 김문숙, 2011;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의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는 개인의 내외적 요구가 이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할 때 경험하게 된다(김윤정, 1996). 이에 양육 스트레스는 부모 역할을 수행할 때 부모가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생활사건 속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말하며(Abidin, 199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영아의 부정적인 발달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라, 김진경, 2012; Lee, 2009). 또한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이 성장하는 동안 지속되는 속성이 있어서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Crnic, Gaze, & Hoffman, 2005), 아동의 대인 적응성, 인기도와 같은 사회적 발달과도 관련이 있었다(Kim & Do, 2004).

이처럼 많은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의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은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여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위험 발달을 보이는 영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일반 영아 어머니의 특성과 비교·분석 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영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위한 교육적 지원과 위험 발달을 보일 수 있는 영아의 조기 선별 및 중재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다음과 같다.

1.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자아, 결혼,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2.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자아, 결혼,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3차년도(2010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단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성장 과정을 장기적으로 조사하여, 각 시기에 발생하는 요구와 양육실태, 아동의 발달 특성,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국가수준의 종단연구이다. 3차년도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발달 특성, 부모됨의 특성, 육아지원관련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구방문, 병원방문 면접조사, 우편설문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2010)자료의 총 표본 1802가구 중 한국형 Denver II 아동발달 검사결과 정상 범주로 구분된 1584명의 영아(25~27개월)의 어머니와 의심스런 발달로 구분된 186명의 영아(25~27개월)의 어머니이다.

2. 측정도구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자료 중 본 연구에서 선택한 변인들은 아래의 도구들로 측정되었으며, 각 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1) 위험 발달군 분류

위험 발달군 아동이란 한국형 Denver II 아동발달 판별검사를 통하여 의심스런 발달로 구분된 186명 아동을 말한다. Denver II(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검사도구는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에 적합한 검사항목별로 아동의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도구로서, 주 양육자가 아닌 제 3자가 아동의 수행을 평가한다. 검사는 총 110항목으로 아동의 발달영역을 개인-사회성 발달, 미세운동-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의 네 가지 영역으로 측정하며, 24개월 이하는 월별로, 그 이후는 3개월 단위로 연령이 구분되어 있다. 검사 판별은 해당 연령의 다른 아동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의 수행능력을 월등-정상-주의-지연 항목으로 구분한다. 아동의 90%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발달 ‘지연’으로, 아동의 75%가 통과한 항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의’ 항목으로 분류하며, 최종적으로 4개 영역별로 주의 및 지연 항목수를 합산하여, ‘정상’과 ‘의심발달’ 범주로 구분한다. 지연항목이 없고 주의항목이 최대 1개인 경우를 ‘정상’ 범주로, 1개 항목에서 지연이거나 2개 이상의 항목에서 주의인 경우에는 ‘의심발달’ 범주로 구분한다.

Denver II 검사 실시 후 정상-의심스런 발달 분포를 분석한 결과, 3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전체의 89.8%(1584명)가 정상 범주로 구분되었으며, 10.2%(186명)가 의심스런 발달로 구분되었다. 아동의 월령은 26개월 30.4%, 25개월 25.0%, 27개월 17.1% 이었다.

2) 어머니의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

(1) 우울

우울은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et al(2002)이 개발한 간편형 우울척도 ‘K6’를 수정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지난 30일 동안 무기력하였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불안하였습니까?’ 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해 ‘전혀 안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89)가 개발한 ‘Self-Esteem’ 질문지를 번안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내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긍정적 진술 5개 문항과 ‘때로는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한다.’ 등의 부정적 진술 5개 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PSID-CDS)에서 사용한 Pearlin Self-Efficacy Scale(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 Mainieri, 2006)을 번안하여 수정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삶의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느낀다.’, ‘내가 가진 몇몇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등의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Schumm, Nicols, schectman와 Grigsby(1983)가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를 사용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합니까?’ 등의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갈등 및 이혼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이전에 관계 개선을 돕기 위한 ‘결혼문제예방 및 결혼생활’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Markman, Stanley와 Blumberg(2001)의 부부

갈등 척도를 정현숙(2004)이 수정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배우자로서 아내(남편)에게 얼마나 만족합니까?’ 등의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남편의 양육참여

남편의 양육참여는 강희경과 조복희(1999)가 홍성례(1995)의 도구를 수정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아이와 자주 놀아 준다.’, ‘아이에게 우유 먹이거나 목욕시키기 등의 일을 한다.’ 등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0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

(1) 양육지식

양육지식은 MacPhee(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KIDI)’ 를 수정·보완한 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아기들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단어들만 이해한다.’ ‘정상적인 아이 중에서도 몇몇 아이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등의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 혹은 ‘아니다’ 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응답이 옳을 경우 1점, 옳지 않을 경우 0점을 부과하여 모든 응답 내용을 점수화하였다. 총 문항 중 정답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양육지식점수로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올바른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70으로 나타났다.

(2) 양육스타일

양육스타일은 Bornstein et al(1996)이 개발한 양육방식(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 PSQ)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내 아이가 놀이집단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나는 내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낸다.’ 등의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스트레스’ 만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다.’, ‘아이 때문에 모임에 가면서도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

령다(5점)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과 심리적 특성(자아관련, 결혼관련, 양육 관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빈도분석,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연령, 가계 소득, 학력 변인 중 가계소득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변인에서 위험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3.04세($SD= 3.76$),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2.75세($SD= 3.65$)로 나타났다. 소득변인에서 위험발달군 영아의 가족소득은 평균 326.31만원($SD= 198.50$), 일반 영아의 가족소득은 평균 386.89만원($SD= 403.29$)으로 일반 영아 가족의 평균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 = 2.00(p < .0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력변인에서 위험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대학교를 졸업한 어머니가 64명(3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57명(30.6%), 전문대학 졸업 41명(22%), 대학교 졸업 이상 11명(5.9%), 중학교 졸업 이하 1명(.5%) 순이었다.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대학교를 졸업한 어머니가 593명(37.4%), 고등학교 졸업 426명(26.9%), 전문대학 졸업 372명(23.5%), 대학교 졸업 이상 74명(4.7%), 중학교 졸업 이하 9명(.6%) 순이었다.

<표 1>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연령, 가계소득 (N=1770)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연령	위험발달군	185	33.04	3.76	-1.00	.316
	일반	1571	32.75	3.65		
	전체	1756	32.78	3.67		
가계소득	위험발달군	182	326.31	198.50	2.00	.046*
	일반	1529	386.89	403.29		
	전체	1711	380.45	387.105		

* $p < .05$, ** $p < .001$

<표 2>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학력 (N=1770)

변인	위험발달군		일반		t	p	
	n	%	n	%			
학력	중졸이하	1	.5	9	.6	.54	.59
	고졸	57	30.6	426	26.9		
	전문대졸	41	22.0	372	23.5		
	대졸	64	34.4	593	37.4		
	대졸이상	11	5.9	74	4.7		
	전체	174	93.5	1474	93.1		

* $p < .05$, ** $p < .001$

중졸이하=1, 고졸=2, 전문대졸=3, 대졸=4, 대졸이상=5

2.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1)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에서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 변인은 가능점수범위(6~30점)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2.34($SD= 4.10$),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1.77($SD= 4.20$)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변인은 가능점수범위(10~40점)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29.63($SD= 3.95$),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29.86($SD= 4.12$)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변인은 가능점수범위(4~20점)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4.34($SD= 2.91$),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4.76($SD= 2.85$)으로 나타났다.

<표 3>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N=1770)

변인	집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p
우울	위험발달군	180	6.00	24.00	12.34	4.10	-1.73	.08
	일반	1555	6.00	29.00	11.77	4.20		
	전체	1735	6.00	29.00	11.83	4.19		
자아 존중감	위험발달군	179	20.00	40.00	29.63	3.95	.72	.47
	일반	1549	13.00	40.00	29.86	4.12		
	전체	1728	13.00	40.00	29.84	4.10		
자기 효능감	위험발달군	180	6.00	20.00	14.34	2.91	1.85	.07
	일반	1555	4.00	20.00	14.76	2.85		
	전체	1735	4.00	20.00	14.72	2.86		

* $p < .05$, ** $p < .001$

2)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 중 결혼만족도, 남편의 양육참여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변인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4.87($SD= 2.99$),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5.46($SD= 3.08$)로 일반 영아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 = 2.44(p < .05)$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부갈등 변인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7.13($SD= 6.07$),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6.60($SD= 6.16$)으로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편의 양육참여 변인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4.01($SD=3.34$),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14.99($SD= 3.35$)로 일반 영아의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 = 3.70(p < .001)$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N=1770$)

변인	집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p
결혼 만족도	위험발달군	179	4.00	20.00	14.87	2.99	2.44	.02*
	일반	1548	4.00	20.00	15.46	3.08		
	전체	1727	4.00	20.00	15.39	3.07		
부부 갈등	위험발달군	171	8.00	40.00	17.13	6.07	-1.07	.29
	일반	1510	8.00	40.00	16.60	6.16		
	전체	1661	8.00	40.00	16.65	6.15		
남편의 양육참여	위험발달군	177	4.00	20.00	14.01	3.34	3.07	.00**
	일반	1547	4.00	20.00	14.99	3.35		
	전체	1724	4.00	20.00	14.89	3.36		

* $p < .05$, ** $p < .001$

3)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

어머니의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간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에서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육지식 변인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8.63($SD= 2.57$),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9.12($SD= 2.40$)로 일반 영아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 = 2.63(p < .05)$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스타일 변인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3.45($SD= 4.38$),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4.24($SD= 4.62$)로 일반 영아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 = 2.19(p < .05)$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양육스트레스 변인에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1.80($SD= 6.54$), 일반 영아의 어머니는 평균 30.53($SD= 6.95$)으로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t = -2.34(p < .05)$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N=1770)

변인	집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p
양육 지식	위험발달군	186	.00	13.00	8.63	2.57	2.63	.01*
	일반	1584	.00	13.00	9.12	2.40		
	전체	1770	.00	13.00	9.07	2.41		
양육 스타일	위험발달군	181	22.00	45.00	33.45	4.38	2.19	.028*
	일반	1554	9.00	45.00	34.24	4.62		
	전체	1735	9.00	45.00	34.16	4.60		
양육 스트레스	위험발달군	179	11.00	51.00	31.80	6.54	-2.34	.020*
	일반	1552	11.00	53.00	30.53	6.95		
	전체	1731	11.00	53.00	30.66	6.92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아의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특성에 대하여, 한국형 Denver II 발달검사를 통해 판명된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가계소득, 학력) 및 심리적 특성(우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남편의 양육참여,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계소득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 영아 가족의 평균소득이 위험 발달군 영아 가족의 평균소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은설·도남희(2012)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집단의 자녀들이 저소득집단의 자녀들보다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아의 신체적 발달, 인지적 능력,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주어 아동기 학업성취와 성인기 취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따라서 가계소득은 영아의 성장환경에 중요요인이 되며,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으로 나누어 변인별 평균점수를 알아보았다. 위험발달 영아 어머니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양육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고, 일반 영아 어머니 집단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결혼만족도, 남편의 양육참여,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평균점수가 더 높았다.

Hunt & Paraskevopoulos(1980), Klein & Cordell(1987), Yoon & Cho(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확한 양육지식은 올바른 양육 기술 습득과 실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영아

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김종훈, 이지영과 성지현(2013)은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일수록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이며 영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설명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일반 영아 어머니 집단이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를 덜 갖고, 건강한 자아심리와 양육실제, 부부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결혼관련 심리적 특성 중 결혼 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 양육관련 심리적 특성 중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아관련 심리적 특성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양육참여, 양육지식, 양육스타일 네 변인 모두 일반 영아 어머니의 점수가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육스트레스 변인만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양육과 부모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며(Belsky & Isabella, 1985; Jenkins & Smith, 199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태도는 자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녀에게 성취압력을 덜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장재홍, 김태성, 2002). 또한 Ferankel과 Bates(1990) 그리고 Landy, Smith, Swank와 Miller-Loncar(2000), Lee(200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과 문제해결능력을 예측 하였고, 오정순(2012)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온정적인 태도, 영아 요구에 대한 반응에 따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줌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남편의 양육참여, 부부관계의 질, 양육스트레스, 양육실제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및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위험발달을 보이는 아동의 발달 및 증재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 한 연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한국아동패널 자료에서 한국형 Denver II 발달검사를 통해 선별된 위험 발달군 영아 186명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1584명의 어머니로 각 집단 간 연구대상자 수의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패널 자료의 연구대상자는 위험 발달군 영아 어머니에 따른 층화표집으로 선정되지 않고, 전국 6개 권역별 분만건수에 따른 층화표집으로 선정됨에 따라 집단 간 대상자 수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연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위험 발달군 집단의 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후속연구에는 연구검증에 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연구대상자들을 통해서 심도 있는 연구결과 산출을 기대해 본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만을 살펴봄으로써 위험 발달군 영아의 어머니와 일반 영아 어머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어머니의 다양한 특성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한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련되는 중요한 일이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전통적인 역할은 줄어들고 자녀 양육이라는 역할은 어머니와 공유하면서 아버지는 아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Parke, 2000), 아

동발달에서 아버지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왔다(김은지, 박성연, 2002;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황정애, 백경임, 2005). 선행연구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옴으로써 아동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해 보며, 아버지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강희경, 조복희 (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김광웅, 이인수 (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윤정 (1996).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활동 중심 집단 상담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설, 도남희 (2012).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 한국아동패널 연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6, 73-88.
- 김은지,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사회화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3(3), 187-203.
- 김정란 (2004).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자녀학대 및 자녀의 우울.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38-690.
- 김중훈, 이지영, 성지현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관련 변인이 2세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방식의 매개적 역할. **한국아동학회지**, 34(6), 77-96.
- 김혜라, 김진경 (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 김현정 (2002).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명희, 이숙 (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9(4), 181-206.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1), 29-43.
- 문영경, 민현숙 (2010).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 연구.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39-155.
- 박성연 (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61(2), 305-329.
- 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한국형 Denver II 검사**. 서울: 현문사.
- 엄경아 (1992). 아동의 성격 특성에 관한 일 연구: 형제수, 출생순위 및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와 관련시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정순 (2012). 영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양육 관련 특성을

- 중심으로. **생애학회지**, 2(2), 51-65.
- 오혜영 (1981). 성취결과에 대한 인과적 귀속과정과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연구. 미출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 우정희, 이미숙, 전춘애 (2003).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2), 91-101.
- 유수옥 (2005). **유아특수교육론**. 서울: 학지사.
- 윤형주, 조복희 (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련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 이순복, 김문숙 (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기능 및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2), 171-186.
- 이운주 (2004). 초등학교생의 자아탄력성과 부모갈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급생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2), 435-449.
- 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 양육특성에 미치는 변인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83-106.
- 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2). 친지의 사회적지원,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특성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3(2), 91-108.
- 임희수, 박성연 (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장재홍, 김태성 (2002).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과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자녀양육태도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23-139.
- 장혜성, 서소정, 하지영 (2008).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 서울: 학지사.
- 정은희, 이미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15-126.
- 정현숙 (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 통계청 (2011). 주제별통계 복지-장애유형별 출현 통계. 국가통계포털.
- 허보운, 한경자 (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2), 131-146.
- 홍성례 (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정해, 백경임 (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의 부성경험에 관한 일 연구. **아동학회지**, 26(3), 61-76.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Belsky, J., & Isabella, R. A. (1985).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change following the birth of a baby: A retrospective analysis. *Child Development*, 56(2), 342-349.
- Bornstein, M. 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 J. Bornstein & J. 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 (pp. 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with korean couples 1. *Psychological Reports, 95*(3), 1015-1022.
- Conrad, B., Gross, D., Fogg, L., & Ruchala, P. (1992). Maternal confidence, knowledge, and quality of mother-toddler interactions: A preliminary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4), 353-362.
-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 Felker, D. W., & Stanwyck, D. J. (1971). General self-concept and specific self-evaluations after an academic task. *Psychological Reports, 29*(1), 60-62.
-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3), 810-819.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2), 267-290.
-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http://www.isr.umich.edu/src/childdevelopment/home.html>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출력.
- Humphry, R., & Wakeford, L. (2006). An occupation-centered discussion of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for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0*(3), 258-267.
- Hunt, J. M., & Paraskevopoulos, J. (198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0*(2), 285-298.
- Jenkins, J. M., & Smith, M. A. (1990). Factors protecting children living in disharmonious homes: Maternal repor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1), 60-69.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u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5), 793-810.
- Johnston, J. R., Gonzalez, R., & Campbell, L. E. (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4), 493-509.
- Kessler, R. C., Andrews, G., Cople, L. J., Hiripi, E., Mroczek, D. K., & Normand, S. L., et al. (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 Kim, H. M., & Do, H. (2004). Maternal parenting stress, efficacy, and behavior :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6), 279-298.
- Kim, H. N., & Seo, S. J.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and infant develop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307-329.
- Kitzmann, K. M. (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and parenting. *Development Psychology*, 36(1), 3-13.
- Klein, H. A., & Cordell, A. S. (1987). The adolescent as mother: Early risk identif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1), 47-58.
-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 Miller-Loncar, C. L. (2000). Early maternal and child influences on children's later independent cognitive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1(2), 358-375.
- Lee, H. M. (2006).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yle and sensitivit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H. (2009). Influence of maternal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on infant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rner, J. V., & Galambos, N. L. (1985). Mother role satisfaction, mother-child interaction, and child temperament: A proc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157-1164.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 MacPhee, D. (1984). The pediatrician of as a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100.
- MacPhee, D. (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 Mainieri, T. (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II*. http://psidonline.isr.umich.edu/CDS/cdsii_UserGd.pdf에서 2007년 2월 11일에 출력.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and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Miller, S. 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Parke, R. D. (2000). Father involvement: A developmental psychological perspective. *Marriage & Family Review*, 29(2-3), 43-58.
- Radke-Yarrow, M., Cummings, E. M., Kuczynski, L., & Chapman, M. (1985). Patterns of attachment in two-and three-year olds in normal families and families with parental

-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4(4), 884-893.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http://www.bsos.umd.edu/socy/research/rosenberg.htm>에서 2006년 11월 11일에 출력.
- Schumm,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2), 567-572.
- Stigler, J. W., Smith, S., & Mao, L. W. (1985). The self-perception of competence by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5), 1259-1270.
- Welner, Z., Welner, A., McCrary, M. D., & Leonard, M. A. (1977). Psychopathology in children of inpatients with depression: A controlled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4(6), 408-413.
- Yoon, H. J., & Cho, B. H. (2004). Maternal knowledge of child-rear home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1(2), 59-88.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identify the ego, marriage and parenting-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of infants with developmental risk, as well as to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i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ose of mothers of normal infants. For this purpose, we used SPSS 21 statistical software to calculate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values, and also conducted frequency analysis and t-tests. The study subjects were mothers of 1584 normal infants and 186 infants with developmental risk, who were classified by Korean Denver II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rom a total of 1802 families listed in the 3rd year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2010. Our result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arital satisfaction and husbands' parenting participation between two groups, among the marriage-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renting knowledge, style and stress among the parenting-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observed in the ego-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These results are thought to serve as baseline data for the infants with developmental risk at the precautionary level.

▶*Key Words* :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Korean Denver II), ego-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marriage-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parenting-relate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논문투고 2014. 08. 15.
수정원고접수 2014. 10. 17.
최종게재결정 2014. 10. 05.